

도심속의 조형물

상공회의소 상징탑

FEATURE

Moulding of the Downtown Area

by Han, Do Ryong



상공회의소 상징탑

• 인간의 생활환경과 구조물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생활과 환경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 그 자신을 인식한 다음부터 보고 느낄 수 있는 외적인 세계로 관찰의 눈을 옮김으로써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리라 여겨진다. 실로 현대조각이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인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서생활의 한 원천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유지하고 완성하느냐는 문제는 우리 시대에 가로놓인 숙명적인 과제이기도 하겠거니와 조각가 모두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을 둘러싼 자연은 인간의 행동을 인간 그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여러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조형환경은 가치기준이 개입한 활력소가 필요해지게 되며 인간과 조형환경의 창조는 활력소의 기반 구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좌우된다. 그래서 인간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구조물들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본다.

환경조각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조형공간구성이라는 목적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감상함으로써 예술적 감각을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함께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 아래 세워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조각은 감상적 의미와 실용적 의미인 도시경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조각은 건축과 함께 인공적 환경에서 커다란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고 인간의 정신을 순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조각이 도시환경의 필수적인 구조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미적 과정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경조각은

감상적 의미와 실용적 의미인 도시경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술품들에 의해서 차가운 현대인의 생활공간과 그들의 정신적인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며, 도시 건축들의 특성인 경직된 사각형의 문명적 환경을 깨뜨릴 수 있는 예술적인 장식성을 부여하여 예술품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환경조각의 기능은 그 자체가거나 환경과의 조화로써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예술의 형태와 기능을 종합할 Total-Programming 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상징적인 의미의 환경 조형물

Art Brenner 는 두 가지의 형태인 건축과 조각을 통합하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는 기능면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면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각을 건축과 통합시키는 기능적인 면은 조각을 건물의 구조에 맞게 짜는 것과 다소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디자인 하는 것,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심리학적 면은 기능면과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며, 조각이 표현하고 상징하고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또한 그것은 조각가가 부여한 그것의 의미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중세의 조각들이 가졌던 구상성을 배제한 비구상성, 즉 추상성을 지닌 작품들이 옥외조각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작가의 개성적 정신세계가 관중들로 하여금 호응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 이외에도 옥외조각은 관객적, 구체적, 상징적, 직접적이어야 한다. 또한 계획된 도시공간과 함께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

환경조각을 말할 때 이정표적인 Monument 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환경조각은 그 예술성을 차지하고서 어느 곳에 있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부연상황에 의해 기억되거나 용도와 기능에서 연상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환경조각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념적 배경을 가진 기념상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상공회의소의 상징조형물에 있어서는 성장

발전하는 한국의 공업을 상징할 수 있는 드릴과 동양 전통 상업의 상징인 주판 알을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 조화시켜서 총화, 협동, 조화를 이념으로 한 상공인의 기상과 한국 상공업의 발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판 알의 쌓임은 협동을 의미하며 대비 효과는 조화의 상징이다.

또한 세로로 서 있는 드릴과 두 주판 알은 10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여 100 주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원형 분수대 주변의 45개의 의자는 45지부를 표현하고 있다. 연못의 뿔어오르는 45개의 분수 노즐 역시 성장하는 45개의 지부를 상징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끊임없이 구르는 2개의 바퀴는 영원성, 회전, 협력과 조화를 나타낸다.

재질에 있어서도 스텐레스와 돌의 재질로서 상공의 조화를 의도하였다.

모자이크 타일로 구성된 3파선은 근접하여 있는 남대문과 함께 고전 한국을 표현함과 동시에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한국의 전통 건조물이 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에 더하여 동적인 분수 밑에 위치함으로써 정중동의 의미를 가하였다.

바닥은 서로 다른 높이의 계단식으로 설치하여 상부의 구조물과의 조화를 이루며 물의 흐름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물의 흐름의 면(面)에서 물결이 일게 하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만들어 내어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심한 무더위 속에서는 그것과는 대극적인 물의 차가움이 요구되어 연상되는 수가 있으며, 또한 물소리를 들을 때 그 차가움이 연상되는 수가 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물의 이미지에선 세차고 감동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온건하더라도 물질의 개성을 나타내는 물 자체의 이미지나 다른 물체나 공간에 대한 물의 작용내용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다. 이러한 상공회의소의 상징탑은 대중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좌석을 제공하기도 하며, 또한 그것을 봄으로써 그 건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여 이정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도시내의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조각물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영웅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서 오늘날 주변 세계를 돌보이게 하는 심미적 역할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요소로서 시각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환경의 질 속에서 시각적으로 또한 정신적 상징으로 공헌한다. 즉 오늘날 공공조각은 과거보다 더욱 지역사회의

단결이나 상징의 상(像)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환경조각에서 특히 강조할 수 있는 것은 현대인의 실존적 공간에서 정신적 상징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환경조각이 지나는 환경세계의 의미나 그 실존적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도시의 산업화, 기계화된 획일화 속에서 그 흐름에 쫓기는 현대 인간들의 실존적 의미는 오늘날 환경조각을 통해 정신적인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환경조각의 기능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실존의 방위와 그 존재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있다.

• 주변공간의 환경화

환경은 물리적 자연요소와 인간생활과 인간에 의한 가공물이 그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모든 환경의 여건과 감각적 공간을 지니고 있으며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하나의 체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환경은 자연환경과 대응하는 새로운 인위적 자연을 창조한다. 그것은 인위적 물체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 공간을 말한다. 환경조각은 이러한 도시 환경의 영향 속에 있으며 도시지형의 영향도 받게 된다. 지형적 조건은 도시 내의 양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도시는 개별적 환경을 이루게 된다.

도시환경에는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이 있다. 도시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인간 개체에 대한 환경은 전자에 속하며 사회환경, 경제환경 등은 후자에 속한다. 물리적인 도시의 생활환경은 인간의 행동패턴에 의해 주거환경, 교통환경, 노동환경 등으로 분류하거나 과제로 삼는 환경요소에 따라 일조환경, 녹지환경, 교육환경 등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도시공간의 조형요소는 대규모의 외부 공간에서부터 소규모의 공중전화나 하늘을 나는 새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조형요소들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alprin의 구분에 의하면 첫째, 공공공간(Open Space) 으로서 가로, 광장, 공원 그리고 스카이 라인(Sky Line) 이 있으며 이것은 조망을 위한 조형성으로 도시의 성격과 격조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요소이다. 둘째, 구조물로서 건물군, 도로, 육교, 지하철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다양한 구조로 소재로써 형성되어져 Open Space 보다 더 조형적 체험을 절게 하여 준다. 셋째, 도시의 시설 및 가구로서의 조형요소인 물.

수목, 생물 혹은 가로상의 표식과 상징, 버스 정류소 등은 섬세한 조형감각을 시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네째, 움직이는 요소로서 기구, 구름과 새, 야경(夜景), 자동차,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에 속하며 도시의 생동감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또 다른 분류에 의하면 첫째, 구조물—건물, 가로, 광장, 도로, 하이웨이, 주차장, 지하부의 재설비, 둘째, 보행자만의 자유공지 (Open Space), 셋째, 자연, 지형, 바위, 식물, 물로 나뉘는데 도시화 과정 중에서 첫째 요소는 최대화 되고, 둘째 요소가 최소화되며, 셋째 요소는 거의 소거되는 경향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위의 구분에서 도시공간의 건축적인 요소는 도로, 광장, 건물, 조각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요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Land mark, Sign, Symbol 로서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 산재해 있는 고건물이나 기념탑 및 동상들은 각 지역의 Land mark 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기능 이외에도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역의 상징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도시는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사적 공간까지도 도시양식에서 뺄 수 없는 유효공간이 된다. 현대 도시는 건축에서 획일화 되고 규격화 된 대량 건축물로서 현대인의 개성을 소멸시키고 있다. 이러한 건축공간에 조각의 도입은 인간의 정서순화를 위한 방편이 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협력된 생활공간이 강력히 요구되어진다.

환경미술은 단순히 옥외조각이라든가, 환경 장식미술 또는 기념비적 조각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환경조형물 등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존재의 실제적 문제의식 때문이기도 하겠거나 현대미술의 요구에 의해 발생된 조형적 양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옥외·조형물이란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조형공간구성이라는 목적 및 그것을 감상함으로써 예술적 감각을 체험하고 정서적 안정과 함께 미관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아래 세워진 조형물이다. 조각이 외부로 나오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조각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첫째, 도시공간 내의 옥외조각은 지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옥외조각은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는 시민들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해 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둘째, 공간의 구획을 한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간적으로는 감상물이면서 또 하나의 건축적 기능, 예를 들어 입구의 역할이나 간막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시각적인, 심리적인 액센트의 역할을 한다. 즉 조각적 Object 가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에 놓여짐으로써 복잡하고 무질서해지는 전체 도시의 형태를 정돈하고 미화하는 강조의 매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째, 실용적 기능이 있다. 도시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물을 제공해 주기 위한 분수 조명을 위한 것, 앉기 위한 용도,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 놀이 용도 등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하다. 다섯째, 공공미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화랑이나 전시장 대신 보다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도시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게 하고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조형표현의 현장을 화랑이나 박물관 등의 닫힌 공간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외부로 끌어냄으로써 보다 다양한 조각적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변 공간의 환경화 즉 기존건물이나 구조물, 잔디나 나무 등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현대조각의 보다 폭넓은 공간 소유를 시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의 대중과의 접촉을 통해 현대조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때 도시공원이거나 광장과 도로 등지에 기념비성을 띤 조각 내지, 조각이 추가 되는 조형물과 분수조각 등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 설치되어진 조형물은 이미 그것 자체가 설치 목적이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곧 주변과의 상응관계에서 조경이라는 문제와 함께 대두되어지게 된다. 이같은 조경은 구조물에 대한 보완으로서 건축에 의해 좀처럼 완성된 일이 없는 공간형태의 투자를 완성시키려는 충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자연과 문명을 조화하는 일일 것이다. 바로 여기에 환경으로서의 조경이란 문명과 자연을 조화시키려는데서 생겨난 예술적 감각이라고도 하겠기 때문이다.

도시의 외관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느끼게 되고 도시의 외관에서 받게 돼 감상자의 성격, 감상자의 성장과정, 감상자의 욕구와 목적,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도 모르고 지나치는 공간들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빈틈없이 사용되고 있는 도시공간에서 도시의 환경을 운택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고는 느낌은 사물의 형태, 사물의 성격, 그곳에서 인간의 활동 패턴을 찾아내어 이에 맞는 시설과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의 환경에는 무엇보다 먼저 효과적이고 장래성 있는 공간의 설계가 필요하며 그 주요공간을 채우는 예술품들이 도시의 얼굴로서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앞서 추진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위가 가해진 어떤 구조물과도 마찬가지로 조각도 하나의 인간행적이다. 즉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대하는 모든 것을 표현한 것이며 미술품들의 기본적 성질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어떤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도시 환경조각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에 기여하는 미학적 요소로서 시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에 보다 효율적인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며 단순한 목적으로서의 장식이나 미화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 도시의 차가운 직선문명 속에서는 곳곳에 자연이 존재해야 한다. 인공적 요소가 지배적인 도시 속의 자연은 도시민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며, 도시 밖의 자연은 피곤한 도시인에게 주말 휴식처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조각은 도시 속에 있는 자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생활 속에 조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또 인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술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야외조각은 공원, 어린이 놀이터, 광장 또는 공공건물 외부의 오픈 스페이스 등 어디든지 세워질 수 있다. 야외조각은 심미적인 순수 관상목적의 조형물로서만이 아니고 랜드마크적 심볼리즘을 지녀도 좋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조형물들에게 대중이 접근치 못하게 일정거리를 유지하는데 비해 만져도 되며 그것과 더불어 유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이 갖는 접촉 본능을 해갈시키며 미래지향적 꿈과 상상력을 배양했으면 한다. 인간 소외라는 심각한 현실에서 인간과 인간이 함께 하는 환경과의 조화가 모두에게 배분되는 과제라고 생각될 때, 대중과 조형물과의 밀착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리라 본다.